

만민뉴스 500호 발간 맞아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 만민뉴스가 지령 500호를 맞이
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독
자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여시는 성자 예수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인간 경작의 총감독이신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함께 사역을 이루 가신다.

아름다운 선율에 흐르는 주님 사랑 '아리랑'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인의 노래, 아리랑. 부르기
쉽고 아름다운 멜로디라는 찬사를 받는 이 아리랑은 찬송가로도
불리고 있다.

기도로 살아난 파키스탄 소녀, 13년이 지난 지금은

13년 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사공을 초월한 기도를 통해 죽음의
위기에 살아난 소녀 신시아. 다시 만난 그녀는 건강한 모습으로
의학을 전공하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만민뉴스

제500호 2011년 9월 2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만민뉴스 500호 발간 맞아

만민뉴스 500호 발간 기념 이벤트

만민뉴스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500명 선착순 마감!

EVENT 1
이재록 목사 신앙도서 **을 드려요**

EVENT 2
원하시는 분에 한해 단행본, 핸드북, 아동 및 학생교재,
외국어 번역도서(증정 도서목록 보기 참조) 중
각각 1권씩 택일, 최대 4권을 드려요.

EVENT 3
다문화 가정인 경우, 해당 언어로 번역된 책자를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빨리
만민뉴스 홈페이지(news.manmin.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메일(book@manminnews.com)로 보내세요!
문의 070-8240-5607, 5614, 5621, 5627

성경 복음과 하나님 권능을 전 '만민뉴스' 한국어판이 지령 500호
세계에 전하는 우리 교회 소식지 를 맞았다.

1987년 5월 창간된 만민뉴스는
지난 25년간 수많은 영혼에게 하
나님의 살아 계심과 주님 사랑을
전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국내외 성
도들의 생생한 간증, 신앙정보, 우
리 교회와 전 세계 9천여 개 자협
력교회 소식 등 만민뉴스의 생명력
있는 콘텐츠는 수많은 독자의 삶
을 변화시켜왔다.

오영임 권사(50)에게 만민뉴스
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밝
혀 준 한 줄기 빛과 같다. 출산 후
무기력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던
중 설상가상으로 보종 선 사람의
부채까지 대신 떠안게 된 상황이었
다. 그때 집 앞에 꽂힌 만민뉴스를
읽고 광주만민교회에 인도받아 연
약한 몸이 강건해짐은 물론 온가
족이 전도되어 충성하는 믿음의 가
정을 이뤘다.

강동호 집사(37)는 신입사원 시
절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극도
의 불안과 이명 증세에 시달렸다.
우연히 만민뉴스를 읽고 우리 교회
에 인도받은 후 참 평안을 얻고 건
강을 되찾아 지금은 자신감 있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업 실패로 자살하
려던 성도가 지하철역에서 누군가
가 전해 준 만민뉴스를 통해 주님
을 영접하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
은 사람이 만민뉴스를 통해 갖가
지 인생 문제를 해결받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뜨겁게 만민뉴스를 전하는 성도들
은 영육 간에 축복을 받고 있다.

정필경 집사(63)는 손등에 난 혹
이 사라지는 체험을 한 뒤, 살아 계
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매일 만
민뉴스를 전하게 됐다. 당뇨합병
증 등 여러 질병을 갖고 있던 정 집
사는 만민뉴스를 가가호호 전하
면서 건강을 되찾았다.

호주 골드코스트에 거주하는 홍
하니 집사(43)는 만민뉴스를 주택
가 우체통에 꽂아놓거나 자신이
경영하는 한식당에 비치해 손님들
이 자유롭게 읽도록 하고 있다. 이
를 통해 그녀는 돌출되었던 손목
뼈가 정상이 되는 등 영육 간에 축
복을 받고 있다.

또한 인도의 조수아 소툰 형제
는 기독교 서점에 비치된 만민뉴스
를 읽고 큰 은혜를 받아 현재는 만
민의 사역과 권능의 역사를 열렬히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미국에 사는 파냐 차리코바 성
도(66)도 이재록 목사 설교에 은
혜를 받고 만민뉴스와 저서들을
전하고 있다.

한국어판 만민뉴스는 월 약 130
만 부가 발행되며, 인터넷 신문으
로도 동시 발간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1999년 1월, 영어판을 시작으
로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타
밀어, 불어, 일어, 인니어, 포르투갈
어, 아랍어 등 20개 언어로 발간되
어 해외 선교에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

앞으로 만민뉴스는 학생 및 성
도 기자단과 전 세계 뉴스 네트워
크를 통해 무수한 영혼에게 성경
복음과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더
욱 발 빠르게 보도할 계획이다.

끝으로 만민뉴스 500호 발간을
맞기까지 함께해 주신 좋으신 아
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을 돌린다.

이와 더불어 만민뉴스 제작팀에
서는 만민뉴스를 통해 은혜받은 간
증을 홈페이지(news.manminnews.
com)에 접수하는 애독자들에게 이
재록 목사 신간 『공부 잘하는 비
결』을 보내줄 예정이다.



만민뉴스 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만민뉴스를 번역하면서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
는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목도한 증인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
니다. 하나님 임재와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만민중
앙교회의 사역지마다 나타난다는 사실이 놀라웠는데, 저희도
체험하게 됐습니다. 또한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환
자를 위한 기도’와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받을
때, 시공간을 초월해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재록 목사님의 가르침을 친구,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도 죄를 벗고 거룩함을 찾아 천국의 가장 좋은 처소를 소망하도록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 에라도르 ‘프란코’, ‘엘레나’ 부부 (스페인어)



제작팀이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지혜로 축복
해 주실 것입니다.” - 필리핀 알리시아 (비사야어)



“만민뉴스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말씀 가
운데 살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간행물입니다. 수많은 자협력교회
특히 러시아,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지교회에서는 만민뉴스
를 읽으면서 매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는 영적으로 난
해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나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독
자에게 영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 러시아 소토바 (러시아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19)

...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며, 역할은 달라도 근본이 하나이므로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에 대한 비밀한 말씀이지요.

사람의 제한적인 사고와 이론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간 경작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 3:14)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낳거나 지은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지각과 상상을 초월해 시작도, 끝도 없으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이지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광대한 공간 안에 홀로 소리를 머금은 빛으로 계셨습니다(요 1:1, 요 1:5).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원하셨고,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위해 가장 먼저 공간을 나누셨습니다. 영의 공간과 육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갈 육의 공간을 나

누신 것이지요. 그 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게 됩니다.

성경에는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으며(행 13:33, 히 5:5), 성령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요 15:26, 갈 4:6). 마치 분신을 만들어 내듯이 영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존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경작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

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역할은 다르지만 근본 하나로서, 마음도, 생각도, 능력도 하나이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2.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질서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느끼고 원하시는 것을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도 동일하게 느끼고 원하시지요. 역으로,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쁨이나 고통을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느끼십니다. 그런데도 세 분은 각각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한 분 한 분의 성품이 구별되며 역할도 다릅니다.

분명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셨지만 성자 예수님은 신성적인 면이 더 강해 신(神)적 위엄과 공의가 두드러집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인성(人性)적인 면이 더 강하므로 자상하고 섬세하며 자비와 긍휼의 측면을 더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지만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성품이 구별될 뿐 아니라 뚜렷한 질서 가운데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 다음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은 그 다음이 되어 성부, 성자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십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한 사역 또한 함께 이루어가십니다. 각각의 역할을 정확히 감당하심으로 인간의 창조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작의 섭리가 온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과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1) 구원의 길을 여시는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역할은 구세주로서, 죄인 된 인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는 영계의 법칙에 의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려면 첫째로, 사람이야 하고 둘째로,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하며 셋째로,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고 넷째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십자가의 도』 책자 참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해 난 것이 아니므로 원죄가 없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으셨지요.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불순종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지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인간 경작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으실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성자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 죄 없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2)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

인간 경작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사람들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 얻은 구원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천국에 들어가게까지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에 영을 무수히 분리해 일하신다는 점이 특징이지요. 본체는 한 곳에 계시더라도 본체와 똑같은 마음과 능력을 가진 영이 무수히 분리됨으로써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그 영을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영으로 분리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이처럼 분리되신 성령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성도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끄는 개인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또한 부지런히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할 때는 애통하시며 회개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롬 8:26). 이와 함께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과 각종 은사들을 주셔서 능히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3) 인간 경작의 총감독이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이라는 거대한 계획의 총감독이시며,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이며 마지막 때의 심판자 역할을 하십니다. 이처럼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은 질서 가운데 정확히 나뉘어져 있지만, 결국 세 분이 동시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일서 5:8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물은 영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사역이며, 피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주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령과 물과 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어 사역해 믿는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증거를 주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라고 하였고, 사도 바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후 13:13)라고 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으며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팀 (02)818-7391-3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관·청년·배움·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휴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아름다운 선율에 흐르는 주님 사랑 '아리랑'

한국인의 노래 '아리랑'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부르고 연주하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아리랑이 '부르기 쉽고 아름다운 멜로디'라고 말한다. 여러 분야의 음악가들에 의해 다양한 장르로도 재탄생되고 있다. 전 세계의 유명 뮤지션들에 의해 리메이크되고 있으며, 얼마 전 세계 무대에 섰던 여왕 김연아 선수는 아리랑을 편곡한 오마주 두 코리아로 세계인을 감동시켰다.

한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아리랑이 찬송가로 불리고 있다. 이 곡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사람들 마음에 감명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만민중앙교회에서도 아리랑을 부른다.

성도들은 이 곡을 부를 때 매우 행복해한다. 아름다운 멜로디에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가사로 담겨 있으니 이 아리랑을 부를 때 성도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까닭이다.

아름다운 멜로디의 '아리랑' 찬송가에 실리다

구전되어 온 순 우리말 민요 아리랑은 19세기말 호머 헐버트(1863~1949) 선교사가 1896년 서양식 오선지에 처음 채보(採譜: 곡조를 듣고 악보를 만들)함으로 외국에 알려졌다.

미국 연합장로교회에서 발간한 찬송가집에는 <Christ, You Are the Fullness>라는 제목으로 아리랑이 수록돼 있다(사진).



미국 칼빈대학의 버트 폴먼 교수는 아리랑 멜로디에 반해 찬송가로 만들었다.

그는 찬송가편찬위원회에 직접 작사한 찬송가 아리랑을 제출해 당시 후보곡만 해도 3천여 곡이었으나 미국과 캐나다 전

역에서 모인 편찬위원회 전원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그들이 아리랑을 선택한 이유는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었다.

'아리랑' 노랫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달랜 노래, 아리랑에는 한국인의 정서가 깊이 들어 있다. 한국인이라면 아리랑을 부르면 저절로 감흥이 일 것이다. 아리랑을 인류 최고(最古)의 찬송가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아리랑의 노랫말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영혼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리랑의 의미를 마음에 담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아리랑을 불러보자.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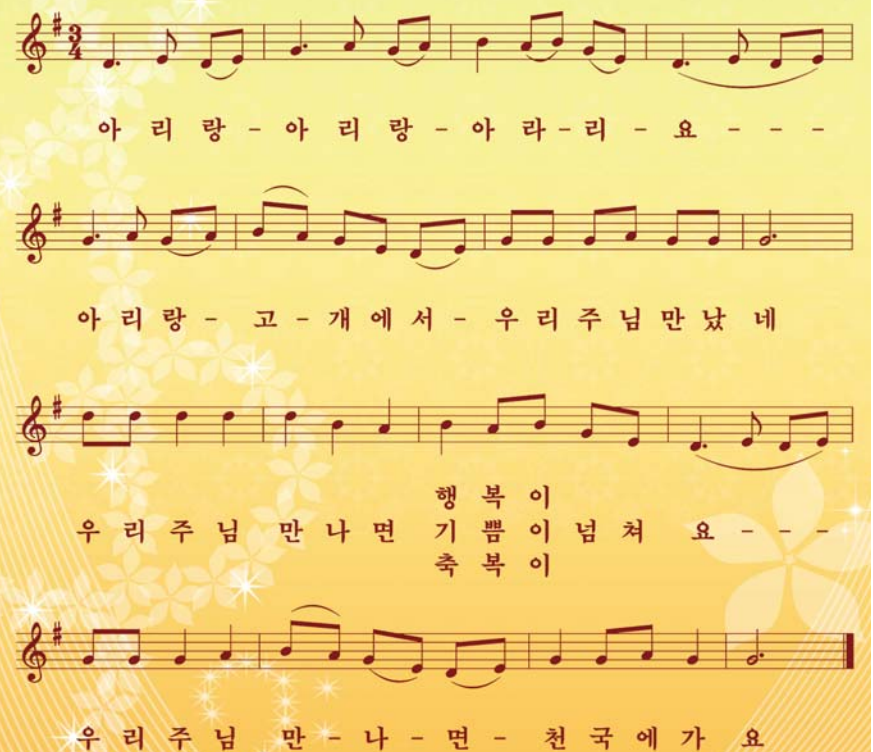
구전으로만 전해진 아리랑은 연음으로 인해 '알이랑'이 '아리랑'으로 변형된 것이라고 한다. 성경에 나오는 '벤엘'의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은 '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한다. 곧 '알'은 '하나님'을 의미하며 '이랑'은 '함께'라는 뜻으로 '알이랑'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나를 버리고 가시는 남은 십 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이 말은 악담이나 저주가 아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남은'이란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가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남은'을 말한다. 곧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십 리도 못가서 발병이 나서라도 더 떠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가는 나의 품으로 되돌아오라는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의 마

아리랑



음이다. 즉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의 노래인 것이다. 바로 하나님과 주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불러야 할 사랑의 노래이다.

*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꿈도 많다

이 노랫말은 우리 마음에 근심이 많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곧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말한다. 고린도후서 7:10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라고 했다.

우리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남은'을 향해 아리랑을 불러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딤후 2:4)의 마음을 생각하며 영혼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September

새벽 이슬처럼 축복한 은혜가 넘치는 9월...
GCN 프로그램으로
가을의 시작을 함께 하세요!

위성 및 인터넷 TV 안내 1577-2073

주요 프로그램 Program

창세기 강해
2011 생명의 말씀(민을을 축양하시라)
기관장 교육
특선명화(퀴바다스)

MANMIN tv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한 신하가 죽음 직전에 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청한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심으로 살려내셨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능의 역사를 변함없이 베풀고 계신다. 선교신문 만민뉴스 500호 발간을 기념하여 이재록 목사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통해 파키스탄에서 죽어 가던 소녀가 살아나 변화된 삶을 소개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한국에서 한 기도로 살아난 파키스탄 소녀, 13년이 지난 지금은...”

7살에 체중 11kg, 수술해도 소생 가능성이 희박했으나

1999년 6월 중순의 일이다. 무더운 여름날 밤, 7살 여자 아이(세리쉬 신시아)가 구토를 했다. 그녀의 아버지 윌슨 존 길 목사(라호르 만민교회 담임)가 기도해 주자 나아지는가 싶더니 설사로 이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면서 대변의 색깔이 초록색을 띠었고 혈변이 나왔다. 급기야는 대변을 볼 수 없었다. 복부는 부어올랐고 그녀는 큰 고통을 호소했다.

급히 라시드병원으로 옮겨졌다. 여러 검사 결과, 대장 폐쇄에 셀리악 질환(보리 등에 함유된 단백질인 글루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소장을 손상시키는 유전질환)까지 겹쳐 극도로 위험한 상태였다. 의사는 수술하지 않으면 살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또한 몸무게가 11kg밖에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니 수술해도 생명이 위태롭다고 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었다. 윌슨 존 길 목사는 그 동안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아왔기에 ‘그분께 기도받으면 딸이 나오리라’는 믿음이 왔다.

이재록 목사님께 사진 위에 기도를 받고 3일 만에 퇴원하여

이에 죽어 가는 딸 신시아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큰 딸 마리아에게 주며 부탁했다. 때마침 마리아는 신앙을 키우고 한국어도 공부할 겸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었



세리쉬 신시아 (파키스탄 라호르 만민교회)

- ① 대장 폐쇄에 셀리악 질환까지 겹쳐 수술해도 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신시아.
- ②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신시아 사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다.
- ③ 치료받은 후 가족과 함께한 신시아.
- ④ 건강하게 자란 신시아는 현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다.

다. 한국에 도착한 마리아는 동생 신시아의 사진을 들고 이재록 목사에게 갔다.

1999년 7월 23일, 한국시간으로 밤 10시 50분경의 일이다. 금요일 아예 밤에 작전에 기도를 받았는데 동일한 시간(파키스탄 현지는 7시 50분경, 당시 서머타임 적용)에 신시아가 급속히 치료되기 시작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다.

급기야 한 달 넘도록 입원해 있으면서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그녀가 기도받은 지 3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9월 9일, 마침 파키스탄 선교를 위해 온 대전만민교회 담임 교역자인 길태식 목사가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순수건(행 19:11~12)으로 다시 한 번 기도해

주니 신시아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됐다.

‘기적의 소녀’라 불리는 신시아
그 후 그녀는 병원이나 약을 의존해 본 적 없이 건강하다. 신시아는 현지에서 ‘기적의 소녀’라 불린다. 그녀의 아버지는 고백한다.

“신시아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 우리 교회는 급속하게 부흥했습니다. 우리 가족과 성도들은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를 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해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당회장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신시아는 가족과 성도들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그 과정을 여러 번 들었다. 이것은 그녀의 신앙 성장에 밑거름이 됐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고자 결심했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뵈고 감사의 인사를 드릴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지낸다.

그녀는 GCN(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 방송을 통해 이 목사의 설교와 간증, 찬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믿음을 키우고 있다. 특히, ‘십자가의 도’(구원의 도가 자세히 담긴 설교)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한때는 매우 내성적이었지만 이제는 예배 및 교회 행사 시 특송과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또한 ‘만민뉴스’를 즐겨보며 매일 기도를 쉬지 않는다고 한다.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전하는 의사가 되고자

신시아에게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확실한 비전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전하는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이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 2005년도에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주최로 인도 첸나이에서 제2회 국제기독교의학콘퍼런스가 열리기 전의 일이다.

그녀의 아버지가 신시아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와 함께 이 콘퍼런스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알리고자 했다. 하지만 무슬림이었던 담당 의사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이 사실을 안 신시아는 ‘의사가 되어 WCDN 콘퍼런스에서 수많은 의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알리리라’고 다짐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녀는 국제 공통언어인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이제는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또한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엘리트 대학(Defence Degree College for Women)에 입학해 의학을 전공하고 있다. 현재 예비 의과 2학년이다.

그녀는 고백한다. “제가 새 생명을 얻은 지 13년이 됐지만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제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당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가 되어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전하는 산 증인이 되겠습니다.”

신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소망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린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아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새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82-5(3층) ☎042)527-2073, 010-7777-70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사정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2672-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산강자이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521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영암만민교회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47-11 ☎061)473-2707, 011-603-7766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900-2069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6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파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2)489-3766, 010-3330-3172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